

## 개항도시의 근대문화 유입과 형성 - 부산과 상하이의 영화를 중심으로\*

곽수경\*\*

### 〈목 차〉

- |                           |            |
|---------------------------|------------|
| I. 개항장과 영화의 유입            | IV. 맺음말    |
| II. 부산과 상하이의 개항           | 참고문헌       |
| III. 부산과 상하이의 영화 유입경로와 형성 | <Abstract> |

### 〈국문요약〉

동북아해역을 구성하는 한중일 3국은 개항과 더불어 근대를 시작했고 근대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때 개항장은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고 유통되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 부산과 상하이는 각각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개항도시로, 이런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대표적인 근대화양식인 영화 역시 이들 도시를 통해 유통되고 영화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양국의 개항과 정치 상황의 차이로 인해 영화의 유입과 발전, 속성, 소비형태 등의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조선은 일본의 독점적 지배구조 하에 있었던 반면 중국은 서구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더군다나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바라볼 정도로 가까이 있고 15세기부터 왜관을 설치하여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부산은 개항 후에는 더욱이 일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상하이는 미국과 영국이 통합한 공공조계와 프랑스조계가 형성되어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컸던 반면 일본의 영향은 미미했다.

여기에서는 조선과 중국에 영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고, 자국 내에서 유통(배급)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영화의 유입과 발전 과정을 보면, 세계적으로 영화는 프랑스에서 탄생한 후 유럽, 미국, 아시아로 전파되었는데, 초기에는 상하이를 거쳐 조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NRF-2017S1A6A3A01079869), 국립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주최한 “제2회 동북아해역과 인문네트워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개항도시의 근대문화 유입과 형성 관련 연구현황과 과제: 부산과 상하이의 영화를 중심으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으로 유입되다가 차츰 일본에 외국영화 배급사가 설립되고 조선에 그 지사가 생기면서 일본을 통해 영화가 유입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반면 중국은 일찍부터 상하이가 영화의 중심도시가 되어 영화는 대부분 상하이로 유입되었다. 비록 부산이 일본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도시로서, 조선에서 극장문화가 가장 먼저 꽃피었고 최초의 영화제작사도 설립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했지만, 영화는 경성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고, 필름의 유통에 있어서도 경성에서 먼저 상영된 다음 지방도시를 순회했으며 영화인들 또한 경성에서 활동하여 영화 제작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조선영화 붐이 일어났을 때도 부산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식민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상하이는 적어도 1940년대까지 줄곧 중국영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여 영화의 전국적 배급과 유통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영화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항장들의 역할과 성격은 일괄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개별적 특수성을 살펴야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북아해역, 부산, 상하이, 개항, 근대문화의 유입과 형성, 영화, 경로

## I. 개항장과 영화의 유입

근대시기 바다는 새로운 문물을 싣고 시장 개척에 나선 사람들을 태운 배들이 대륙과 대륙, 국가와 국가, 항구와 항구로 가는 통로가 되어주었고 개항장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관문 역할을 했다. 새로운 운송수단인 기선(汽船)이 범선(帆船)을 대체하면서 안전성과 운항기간 단축을 가져다주어 세계의 바다는 빠르게 연결되었다. 동북아해역을 구성하는 한중일 3국은 개항<sup>1)</sup>과 더불어 근대를 시작했고 근대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영화는 대표적인 근대의 산물로,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탄생한 후 신기한 볼거리라는 ‘상품’으로 유럽에서 미국, 그리고 아시아 각

1) 여기에서는 근대시기를 한국은 1876년부터 일본 패망까지, 중국은 당대(當代)라는 특수한 시기구분을 우리의 현대 개념으로 보고 1840년부터 1949년까지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영화의 유입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개항 초기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근대시기 전반의 흐름을 살폈다. 최근 부산에서는 개항을 언제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쟁점은 부산의 개항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한 1876년으로 볼 것인가, 『태종실록』의 기록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일본 선박의 기항을 허가해준 1407년으로 볼 것인가 인데, 본고에서 말하는 개항은 근대의 개항을 의미한다.

국으로 운송되었다.

부산과 상하이는 각각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개항도시로, 일찍부터 영화를 접하고 영화문화를 형성한 도시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과 상하이의 지정학적 위치와 개항 상황, 열강들과의 관계 등의 차이로 인해 이들 도시에 영화가 유입된 경로와 영화문화의 형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부산은 일찍이 15세기부터 왜관(倭館)을 설치하여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으로, 개항과 더불어 왜관이 일본인전관거류지로 전환되고 한일강제병합으로 조선이 일본의 통치 체제에 편입되면서 일본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서구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한편 반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자체의 역량이 작용할 여지도 존재했다. 상하이는 역사적으로 광저우(廣州)나 Ningbo(寧波)와 같이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지역 가까이에 위치하면서도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지만 개항과 함께 영국조계와 미국조계, 그리고 프랑스조계 등이 형성되면서 이들 국가의 영향 속에서 빠르게 성장해나갔다.

여기에서는 근대시기 개항도시 부산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신흥 상품이었던 영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과 중국으로 유입되어 영화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는지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영화필름의 물리적인 수송경로나 산업과 교역 구조를 살피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해역의 근대문물의 전파양상과 특성, 개항도시의 성격과 위상, 개항장의 기능 등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볼 때 영화가 부산과 상하이에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영화사나 문화사 등 관련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부산과 상하이의 개항

부산과 상하이는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인해 자국에서 최초의 개항도시가 되었고 근대도시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부산은 일본과 거리가 가깝고 왜관이나 통신사

선(通信使船)을 통해 조선과 일본을 이어주는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조선 내에서 일본문화를 가장 먼저 접하고 수용하는 곳이 되었다. 상하이 역시 사통팔달의 입지로 주목을 받으며 개항이 되었는데, 조계(租界)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상하이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미국과 유럽 등 서양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1. 부산의 개항과 근대도시의 성격

부산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발굴된 고대유물 중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발견되는 흑요석은 대부분 규슈지역에서 나는 것들로, 신석기시대부터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조선시대에는 1407년부터 부산에 일본과의 교역창구인 왜관이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1678년 11만 평 규모의 초량왜관이 열리면서 1876년 개항까지 200여 년간 조선과 일본을 연결했다. 열강 중에서 조선의 개항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탁월했던 부산을 조선 점령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여 부산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개항장이 되었다.

김주관은 개항장은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해 개방하였거나 개방하기로 약속한 항구 또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쇄국에서 개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만 탄생한 특수한 식민공간이 되었고, 이 지역을 통해 제국주의 침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계의 공간구조와 발달 여부에 따라 식민도시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식민도시는 격자형 구조를, 개항도시는 해안을 따라 선형 구조를 가지며 이후 인구 증가에 따라 배후지의 내륙방향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격자형으로 변화하지만 그 시작은 선형구조로, 이는 교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적 목적인지, 아니면 이민자들의 주거지 형성을 위한 정치, 군사적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항장들은 처음부터 격자형 도시 형태를 기반으로 발달하여 일본의 식민지배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sup>2)</sup>

부산의 경우 1877년 1월 30일 체결된 ‘부산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에 의거

2) 김주관, 「공간구조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개항도시의 식민지적 성격－한국과 중국의 개항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하여 초량왜관이 일본인전관거류지로 전환되었고, 일본정부는 식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일본인들의 이주를 장려하면서 급증한 일본인을 위한 거주지역과 각종 편의시설의 필요에 따라 공간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02년 북빈매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930년대까지 부산세관공사, 쌍산착평공사, 부산진매축공사, 영도 대포포 매축공사, 남빈매축공사 등 주로 해안지역의 매립을 통해 해결하였고, 일본인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시가가 형성되면서 종래의 동래 중심에서 해안가로 중심이 이동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상하이 와이탄(外灘)과 같이 교역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식민도시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위한 선박 접안과 하역작업을 위한 공간이었다. 더불어 일본인들을 위한 각종 공공건축과 시설이 늘어나면서 시가가 새로 형성되고 식민 행정의 중심으로서 도시가 재편되었다. 따라서 부산의 도시 공간은 해안을 따른 선형 발달과 동시에 내륙 확장에 따른 격자형 구조를 가지게 되어, 일본이 부산에 대해 수행한 경제 수탈과 식민통치체제 공고화 목적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구 유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일본인의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그들의 여기활동을 위한 문화오락거리가 필요했는데 부산은 일본 문화를 빨리 흡수함으로 인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일찍 근대식 극장이 생겨나게 되었다.<sup>3)</sup> 탈춤, 마당극, 남사당패 등 실내의 닫힌 무대와는 무관하던 한국 전통공연 공간은 이처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실내극장으로 변화했다가 영화가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자 다시 상설영화관으로 전환되었다. 부산에서 처음 영화가 상영되었던 것을 1904년 행좌와 송정좌에서라고 보면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 비하더라도 상당히 늦지만 흥영철의 주장처럼 부산이 일본과 가까이 있으면서 일본의 영향

3) 흥영철은 다른 도시들은 1920년대에 극장이 생겼지만 부산은 1895년에 이미 극장이 있었다고 하며 이보다 앞서 1881년 제정된 ‘일본 거류민 영업규칙’에도 극장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걸로 봐서 한국 극장사의 시초인 행좌(幸座)도 이때쯤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편집부, 『부산, 한국 영화 역사의 시발점』, 『로컬리티의 인문학』 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면). 하지만 이것은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없는 반면 “일본인 거류민들이 인천에서 발간하던 《朝鮮新報》를 통해 확인해본 바, 1892년 5월에 이미 인부좌(仁富座)라는 이름의 극장이 인천에 만들어져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상연, 『활동사진시기 조선영화 산업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2~23면)고 하므로 현재로서는 부산에 최초의 근대식극장이 있었다는 주장도 힘을 얻기 힘들다고 하겠다.

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지로 영화는 이보다 훨씬 빨리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높다.<sup>4)</sup> 특히 다른 나라들에서도 초기의 영화 상영이 정식 영화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주장의 개연성은 훨씬 높아진다. 부산에서 영화관은 일본인전관거류지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건설되었는데, 이들 영화관에서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영화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관에서는 주로 일본영화와 할리우드영화가 상영되었다. 부산은 1920년대에 이미 연간 영화 관객이 30만 명에 달하는 거대 영화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전>을 계기로 경성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조선영화 붐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춘향전>조차 상영되지 않아<sup>5)</sup> 부산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일본에 의해 탄생한 근대도시 부산은 일본의 영향력과 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한 식민성과 종속성을 보였다.

## 2. 상하이의 개항과 발전

상하이는 개항을 맞이하면서 중국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다. “1685년 청 강희제가 개방했던 네 곳의 항구 중 하나인 강해관(江海關)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상하이의 지정학적 가치는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었고”<sup>6)</sup> 영국동인도회사 소속으로 로드 애머스트호(Lord Amherst)를 타고 1832년 중국 해안을 조사했던 예수회 선교사 “구츨라프는 영국인에 의해 개항되기 전부터 상하이가 번성한 상업 항구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때문에 상하이에 처음 도착한 영국인들은 상업의 편리를 위해 상하이의 경제중심인 상하이현성 내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거류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sup>7)</sup>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상하이가 개항 이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4) 홍영철, 『부산근대영화사: 영화상영자료 1915~1944』, 산지니, 2009, 20면.

5) 이지현, 「1920년대 부산과 경성 극장가의 식민성 연구」, 『日語日文學研究』 제105집, 한국일어문학학회, 2018, 215면.

6) 임춘성, 「중국영화를 통해 본 상하이와 상하이인의 정체성」, 임춘성·곽수경 엮고 씀, 『상하이 영화와 상하이인의 정체성』, 산지니출판사, 2010, 19~21면.

7) 최낙민, 「세계를 품은 해양도시, 상하이(上海)-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를 찾아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지음, 『세계의 해양도시 I-아시아편』, 선인, 2014, 79면.

번성한 항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던 광저우나 함께 개항했던 다른 항구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가장 덜 발달한 상하이가 서구 열강들에게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가장 덜 발달했기 때문이었다.

서구 제국들에게 있어 상해가 갖는 또 다른 이점은 중국 상인들과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기에 개항한 다섯 개의 개항도시들 중에서 상해를 제외한 네 개의 항구는 전통적으로 교역이 발달한 도시들이었거나 이미 지역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었던 반면 상해는 개항과 더불어 상업도시로 발달하기 시작한 곳이었다. 게다가 상해는 중국인들과 토지에 대한 분쟁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상해는 기존에 원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아니어도 정착할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롭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sup>8)</sup>

이처럼 자신들의 기호에 맞도록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열강들의 목적은 멋지게 성공한 셈인데, 그들은 치외법권이었던 상하이 조계에서 마음껏 활보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조계는 거주와 상업 활동을 위해 주요 무역항이나 도시의 일정 구역의 토지를 임대하여 외국인이 관리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말하지만 “조계에서 생활했던 외국인들은 행정권과 사법권, 경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으므로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중지국(國中之國)’을 건설<sup>9)</sup>”했고, 조계는 근대 상하이의 성장과 발전의 한 축이 되었다.

상하이에는 1845년에 영국조계가 건설된 것을 시작으로 1848년에는 미국조계, 1849년에는 프랑스조계가 건설되었다. 1863년 영국조계와 미국조계가 공공조계로 통합되어 상하이는 공공조계, 프랑스조계, 중국인 거주지인 화계(華界)로 3분되었다. 1854년은 상하이 사회 발전의 전환점으로, 소도회(小刀會)가 상하이에서 봉기를 일으켜 화계지역으로 피난했던 중국인 2만 명이 난스(南市)에서 양징빈(洋涇濱)으로 몰려왔다. 양행 상인들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명주실, 차, 아편무역을 할 방법이

8) 김주관, 앞의 글, 264면.

9) 최낙민, 앞의 책, 83면.

없어지자 남아도는 자금을 부동산 사업으로 돌리고, 양징빈 연안에 800여 동의 간 이주택을 지어 중국 난민들이 살게 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면서 대량의 자금이 조계로 흘러들었고 토지,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계가 번영할 기초를 제공했다. 이에 영국상인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화양분거(華洋分居)’를 반대했다. 1년간의 논쟁 끝에 중국과 영국은 <토지장정>을 수정하여 중국인들이 조계에서 상업 활동을 하도록 허용해주었다. 그에 따라 중국인들이 대거 조계로 쏟아져 들어왔고 화양잡거(華洋雜居) 상황으로 전환되었다.<sup>10)</sup> 이런 특수한 상황은 상하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그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를 이해하고, 동경하게 했다.

영화 관람에 있어서도 상하이 사람들은 중국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일류 영화관들은 모두 조계에 있었고 절대 다수의 외국영화가 그곳에서 상영되었다. 외국영화를 보는 것이 유행을 따르는 행위로 여겨져서 양행, 외국무역회사 직원과 학생들이 좋아했고, 유한마담과 부잣집 아가씨들은 일류극장에서 외국영화를 보는 것을 폼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작가와 기자들도 영화 애호가들이었다. 이것은 상하이에서만 볼 수 있었던 독특한 광경이었고, 카이펑(開封), 타이위안(太原), 청두(成都), 지난(濟南)과 같은 내지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미국영화는 인기가 없었다. 이들 도시의 중국인들은 대부분 할리우드영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람료를 낮추어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sup>11)</sup> 당시 상하이는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문화적 차이가 컸는데 이런 것들이 근대 상하이의 독특한 도시문화적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항으로 인해 급성장했던 상하이는 탄(灘)이라는 상하이에 붙는 수식어가 말해주듯이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교류의 공간이라는 자연환경적 요소에 조계의 설치라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결합하여 외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하게 함으로써 상하이 사회의 특성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상하이의 개방성과 세계지향성은 오랜 역사를 두고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李天綱, 『人文上海-市民的空間』, 上海教育出版社, 2004, 75면.

11) 李微, 「近代上海電影院與城市公共空間(1908-1937)」, 『檔案與史學』 2004年第3期, 上海市檔案館, 2007, 28면.



### Ⅲ. 부산과 상하이의 영화 유입경로와 형성

영화는 공식적으로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탄생하여 1896년 2월 20일 영국, 5월 17일 러시아, 6월 29일 미국, 7월 7일 인도, 8월 11일 중국, 1987년 2월 15일 일본에서 소개되었다.<sup>12)</sup> 기선의 운항은 영화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개항장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문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는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대표적 근대문물이었던 영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부산과 상하이로 유입되어 배급되었고 영화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근대 동북아시아의 기선 항로

근대의 산물들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토대의 하나는 기선이 범선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기선은 매우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운송 수단으로, 기존의 운송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구 열강들은 일찍이 동인도회사를 징검다리 삼고 드넓은 바다를 건너 아시아로 진출했다. 무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문을 열게 하고 각 개항장과 주요 항구들을 잇는 정기항로를 개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람과 물품을 실어 날랐고 이런 가운데서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도 함께 전파되었다.

1837년 영국 해군본부와 동인도회사는 P&O와 공동으로 영국과 인도간의 정기항로를 개설했고, 1849년에는 홍콩-상하이간 항로를, 1859년에는 상하이-나가사키에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운항했다. 1866년 영국 제2의 동양해운기업인 태평양기선회사(大洋汽船會社, Ocean Steam Ship Co.)가 리버풀-상하이 항로를 개설했다. 이에 앞서 영국의 이화양행(怡和洋行, Jardine Matheson & Co.)도 1842년 홍콩 섬에 본사를 세우고 1844년 홍콩-상하이간 기선항로를 개설했다. 1858년에는 일본 요코하마

12) 1986년 11월 25일 일본 고베에서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가 소개되었고 1987년 2월 15일 오사카에서 루미에르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가 소개되었으므로(한상언, 앞의 글, 2012, 52~53면) 일본에서 최초로 영화가 소개된 것은 1987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고베와 나가사키에 진출했다. 1883년 8월 상하이-부산-인천-나가사키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미국은 기창양행(旗昌洋行, Russel&Company)이 1853년 홍콩-상하이간 기선을 운항했고, 태평양우선회사(太平洋郵船會社, Pacific Mail Steamship Co.)가 1867년 샌프란시스코-요코하마-홍콩항로를 개설하고 별도로 요코하마-상하이 지선을 경영했다. 1870년에는 샌프란시스코-요코하마-고베항로를 상하이까지 연장 운항했다.

일본 정부는 1875년 1월 미쓰비시사(三菱會社)에 일본 근해에 세력을 확장시켜 오던 미국의 태평양우선회사에 맞서 상하이-요코하마항로를 개설 운항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일본 해운회사에 의한 최초의 해외항로가 되었다. 우편기선미쓰비시사(郵便汽船三菱會社)는 이듬해 한국과 일본 간 최초의 정기선이었던 나가사키-부산노선을 왕복으로 운항했고 1883년에는 조선항로를 개정 연장하여 고베에서 시모노세키-나가사키-고토-쓰시마를 경유해서 인천까지 운항했다.

1885년 10월에 설립된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는 요코하마-고베-시모노세키-나가사키-상하이, 나가사키-부산-원산-블라디보스토크, 나가사키-고토(五島)-쓰시마-부산-인천, 나가사키-인천-엔타이(煙臺)-텐진(天津) 항로 등을 운항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일본해운도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1889년에는 상하이-엔타이-인천-부산-원산-블라디보스토크항로를 신설하고, 1905년에는 마침내 부관연락선(釜關連絡船)을 개설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국우편회사(帝國郵便會社)가 1866년에 상하이-요코하마항로를 개설했고 중국의 운선초상국(輪船招商局)도 1883년 상하이-인천 정기항로를 개설했지만 3차례 운항 후 재정문제로 노선을 폐지했다.<sup>13)</sup>

이처럼 1830년대를 지나면서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기선의 정기항로가 개설되기 시작했고 인도,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가 주요 기항지나 경유지 역할을 했

13) 이상의 기선 항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정호, 『近代 韓日航路에 관한 研究』,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황은수, 「개항기 한중일 정기 해운망과 조선상인의 활동」, 『역사와 현실』 75, 한국역사연구회, 2010; 吳松弟·王哲, 「근대 중국의 개항 도시와 동아시아」, 『한국학연구』 제2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松浦章·笹川慶子, 『東洋汽船と映画』, 関西大学出版部, 2016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정리하였다.

다. 1895년 공식적으로 탄생한 영화는 상인들에 의해 무역품의 하나로 기선에 실려 이들 항로를 따라서 신속하게 아시아로 운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쓰우라 아키라(松浦章)와 사사가와 게이코(笹川慶子)는 일본의 동양기선이 태평양항로의 정기항로를 개설한 것과 그것을 따라 미국에서 일본으로 영화필름이 운송되었던 것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에 따르면, 동양기선회사의 선박은 요코하마에서 상하이로 기항하여 중국차를 싣고 수송했으며 그밖에 영화필름도 있었다고 한다.<sup>14)</sup> “미국영화 제작의 메카였던 할리우드가 일어나기 시작한 1910년대 초는 할리우드에서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로 동양기선회사가 일본에서의 정기항로를 이미 운항하고 있었다. 그 덕에 얼마 안 있어 할리우드가 영화를 직접 미국에서 아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영화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항로를 이용해서 아시아를 향해 수송되었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태평양항로를 운항하고 있던 동양기선회사와 미국영화의 일본으로의 수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sup>15)</sup> 미국영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영화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아시아영화시장을 적극 공략했는데 직배체제를 갖추고 샌프란시스코항로를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 2. 부산의 영화 유입경로와 형성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졌던 1910년 이후로는 일본이 조선의 영화산업을 장악하게 되면서 영화 유입경로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1910년 이전에 미국과 유럽영화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상하이에서 조선으로 유입되거나 상하이에서 다시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싱가포르를 경유한 이유는 당시 프랑스 영화사 파테가 싱가포르에 파테 총대리점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일대와 필리핀, 홍콩 등지까지 영화를 판매했기<sup>16)</sup> 때문일 것이며, 조선으로는 싱가포르에서

14) 松浦章·笹川慶子, 위의 책, 83면.

15) 松浦章·笹川慶子, 위의 책, 429면.

16) 한상언, 「1910년대 중반 조선에서 유니버설 영화에 관한 연구」, 『씨네포럼』 23,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6, 340면.

다시 중간 판매업자를 통해 상하이나 일본을 거쳐 유입되었다. “싱가포르는 1826년에 말라카, 페낭과 함께 영국동인도회사의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를 구성했으며, 1867년부터는 영국의 직접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sup>17)</sup> 그리하여 영국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기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1840년부터 아시아 바닷길을 운항하는 증기선의 석탄 공급 항구가 되었기 때문에<sup>18)</sup> 선박들이 긴 항해를 함에 있어 경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1910년 이후로는 영화가 상하이에서 곧바로 조선으로 유입되던 상황은 사라지고 일본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미국영화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아시아에서의 유통체계 역시 변화를 보인다. 원래 영국에서 판매되어 싱가포르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왔던 미국영화는 극동지역에서 유니버설영화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하리마유니버설이 1916년 도쿄에 설립되면서 곧바로 일본으로 수입되었다.<sup>19)</sup>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들도 일본의 극동지사에 미국인 지사장을 파견하고 흥행과 선전, 기타 업무들을 현지인력에 맡겼고<sup>20)</sup> 조선의 국내배급업자들은 이들과 계약을 맺어 미국영화를 수입, 배급했다.<sup>21)</sup>

그렇다면 이처럼 영화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상하이에서, 혹은 상하이에서 다시 일본을 거쳐 조선에 도착한 후 조선에서의 유입경로는 어떠한가. 먼저 조선에 영화가 언제 처음 소개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손탁호텔설이나 영미연초회사의 담배 선전, 조선연초주식회사의 일본담배 선전을 상영했다거나 미국인 버튼 홈스가 경성을 촬영해서 상영했다는 설<sup>22)</sup> 등 다양하지만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통적인 것은 조선에서 최초로 영화가 상영된 지역이 경성이라는 것이다. 조선에서 중심도시는 줄곧 수도 경성이었고 개항과 함께 진행

17) 노영순, 「글로벌 시티의 비밀을 간직한 싱가포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지음, 『세계의 해양도시 I - 아시아편』, 선인, 2014, 265면.

18) 노영순, 위의 책, 266면.

19) 한상연, 앞의 글, 2016, 349면.

20) 이화진, 「유럽영화의 조선 배급-도와상사(東和商事)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25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286면.

21) 이호걸, 「1920~30년대 조선에서의 영화배급」, 『영화연구』 41, 한국영화학회, 2009, 129면.

22) 김려실,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1901~1945년의 한국영화사를 되짚다』, 삼인, 2006, 21~28면.

된 부산의 발전은 일본의 경제적 수탈의 필요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영화유입 초기에 조선에 영화를 가져왔던 서양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도시는 당연히 경성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10년대 이후 조선으로의 유입경로가 일본으로 단일화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영화는 일본과 가깝고 기선항로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던 개항장 부산이 아니라 경성에서 제일 먼저 상영된 다음 부산에서 상영되었다는 것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23)</sup>

당시의 기선항로나 철도 상황을 보았을 때 영화필름의 운송 자체는 일본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한 다음 다시 인천이나 육로를 거쳐 경성으로 운송되었거나 일본에서 곧바로 인천을 거쳐 경성으로 운송되었을 확률도 높다. 일례로 부산 출신이면서 인천 상권을 주도했던 정치국(丁致國)은 1899년 1월 협동기선회사(協同汽船會社)를 설립하여 부산에서 함경북도 경성(鏡城)까지 항행하며 북한지방의 항로를 개척했다. 또한 1900년에는 이완용의 형인 이윤용과 합자하여 대한협동우선회사(大韓協同郵船會社)를 창립하여 주로 인천-진남포 항로에 주력하면서 군산, 목포, 제주, 부산, 원산 등지에 선객과 화물을 수송했다. 그는 인천의 대표 극장이었던 대관(愛館)의 전신인 협률사(協律社)도 경영했으므로<sup>24)</sup> 자신이 운영하던 선사들을 이용하여 영화필름을 부산에서 경성으로 운송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처럼 영화필름의 최종 운송 목적지가 부산이 아닌 경성이었고 그곳에서 먼저 상영된 것은 관람을 통해 소비가 완성되는 영화의 속성 때문으로, 도시 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영화는 초기에는 주로 서양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경성으로 가져가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다가 차츰 독립된 업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선영화 배급사나 외국영화 배급사들이 경성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당시 영화는 극장 등급에 따라 경성의 일류관에서 제일 먼저 상영된 다음 경성의 이류관과 지방 극장에서 상영되

23) 경성에서 상영이 끝난 필름들은 바로 부산으로 보내졌다. 부산의 보래관(寶來館)은 황금관의 프로그램을 받아 상영했으며, 행관(幸館)은 유락관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상영했다. 마찬가지로 니카즈 계통의 닛다연예부에서는 경성의 조선인 상설관인 우미관에 유니버설 영화를, 대정관에 니카즈 영화를 공급했다. 대정관의 니카즈 영화들은 경성에서 상영이 끝난 후, 바로 부산의 상생관(相生館)으로 보내졌다.(한상언, 앞의 글, 2012, 95면)

24) 吳美一, 「開港(場)과 移住商人」,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62~63면.

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비록 영화필름이 부산으로 먼저 운송되었을 지라도 상영은 경성에서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다.

### 3. 상하이의 영화 유입경로와 형성

상하이는 개항과 더불어 신속하게 중국의 경제 중심으로 발전해나갔고 중국과 교역을 원하는 서구 열강들로 인해 조계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조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물과 문화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전파되었다. 그에 따라 근대 상하이의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 역시 수도 베이징이 아닌 개항장 상하이를 통해 가장 먼저 유입되고 발전했다. 1896년 8월 11일 중국 최초로 상하이 유이춘(又一村)에서 영화가 소개된 이후 상하이에서는 외국영화의 유입과 전파는 물론이고 영화관과 영화사 설립, 영화 제작에서 배급과 상영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영화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다. 양진푸(楊金福)는 책 제목에 ‘상하이영화’라는 명칭을 내세우고 서문에서 상하이는 영화가 성장하기 적합한 곳으로, 중국영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상하이에서 최초의 영화 상영, 최초의 영화관, 최초의 영화사, 최초의 단편극영화, 최초의 애니메이션, 최초의 영화잡지 등이 탄생했으며, 상업영화의 기록적인 박스 오피스, 우수한 영화작품, 감독, 배우들이 끊임없이 출현했다. 1949년 이전 중국에서 제작된 3,000여 편의 영화중에서 80% 이상이 상하이에서 제작된 것만 보아도 1949년 이전의 상하이영화사는 기본적으로 곧 중국영화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sup>25)</sup>

25) 楊金福編著, 『上海電影100年圖史1905-2005』, 文匯出版社, 2006. 일반적으로 도시명 뒤에 영화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홍콩영화와 할리우드영화가 있었으나 홍콩영화는 서서히 중국영화로 흡수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할리우드영화 정도가 있다고 하겠다. 1930년대 후반, 좀 더 길게는 1940년대까지 상하이영화라는 용어도 할리우드영화가 미국영화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영화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 중국에서 상하이영화라는 용어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사회주의 중국 이후 상실했던 영화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부산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해두고자 한다. 부산의 영화역사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가 늘어나면서 1996년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부산이 한국영화 발전사에 공헌한 바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부산영화’를 고유명사로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산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상하이는 개항 초기부터 외국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고 경제가 빠르게 번영을 이루어나갔기 때문에 경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양인들이 개별적으로 영화를 가지고 와서 소개하던 것이 점차 돈벌이가 되면서 극장업과 배급업 등 독립된 업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당시 상하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까지 이어지는 기선항로의 기항지이기도 했고, 영화가 크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영화는 상하이로 먼저 유입되어 상영된 다음 내지의 다른 도시들로 유통되는 단계를 거쳤다.

조선에서는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을 전후로 영화의 유입경로가 변화했다고 한다면 상하이의 경우는 세계영화사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미국영화와 유럽영화 간의 주도권이 역전되면서 배급체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영화는 프랑스에서 탄생하여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자본력이 막강했던 프랑스에 비해 미국영화산업은 규모가 매우 작았고 중국에서의 상영과 배급도 유럽보다 뒤쳐졌다. 프랑스 파테사 등이 영화 공급을 독점함에 따라 초기에 미국인이 아시아에 대항처를 가지고 있었고 필리핀 마닐라에도 사무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을 거쳐야 했다.<sup>26)</sup>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유럽이 전쟁으로 고전하는 사이 미국영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미국영화사들이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영화를 판매했다. 1921년부터 할리우드의 유니버설사가 앞서 나가자 다른 회사들도 따라서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영화를 판매했다. 가령 워너브라더스는 상하이와 텐진에, 파라마운트는 홍콩, 상하이, 텐진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들 사무소는 현지에서 중국 영화시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국영화 상영 상황을 뉴욕 본부에 보고했으며 중국 영화관의 계약 이행을 감독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했다. 1900년대 전반기에 미국은 중국에서 평균 매년 350편 이상 영화를 배급했다.<sup>27)</sup> 1930년대 할리우드의 8대 영화사가 모두 상하이에 배급기구를

---

는 경우들을 보면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립한 것은 아니다.

26) 蕭知緯·尹鴻/何美, 「好莱坞在中国: 1897-1950年」, 『當代電影』 2005年第6期, 中国电影艺术研究中心·中国传媒大学, 2005, 67면.

27) 蕭知緯·尹鴻/何美, 앞의 글, 69면.

설립하고 상하이 영화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sup>28)</sup> 보통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된 지 2주일 정도면 상하이 영화관에서 상영되었고 미국과 상하이에서 거의 동시에 상영되기도 했는데<sup>29)</sup>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샌프란시스코항로와 같이 미국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기선의 정기항로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근대시기 개항장의 영화 유입과 영화문화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과 상하이의 영화 유입경로와 배급 상황을 살펴보았다. 근대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영화가 근대의 획기적인 수송수단인 기선의 운항에 힘입어 신속하게 아시아로 유입된 상황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전파와 교류 양상,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개항장의 역할과 위상, 열강과의 관계 등을 비교, 고찰할 수 있었다.

영화의 유입경로에 있어서 조선의 경우는 1910년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싱가포르와 상하이를 거쳐 조선에 유입되거나 상하이에서 다시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1910년 이후에는 그 유입처가 일본으로 단일화되어 문화의 유입과 전파에 있어서 한일강제병합과 같은 정치적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유입경로의 경우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기선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개항장 부산이 아니라 경성에서 먼저 상영된 다음 부산에서 상영된 상황을 통해 문화상품인 영화 소비의 특성과 경성으로 가는 관문으로서의 개항도시 부산의 위상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일본에 의해 거의 독점되었던 부산은 일본인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인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일본영화가 많이 상영되었고 생활 방식에서 의식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영향을 깊이 받아 강한 종속성과 식민성을 보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28) 周仲謀, 「20世纪30年代中国电影的发行业放映—以艺华影业公司为例」, 『东方论坛』 2016年第3期, 青岛大学, 2016, 73면.

29) 汪旭娟, 『近代上海电影与社会生活关系研究(1927—1937)』, 上海大學碩士學位論文, 上海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36면.



반면 중국에서는 서구 열강들이 혼재해 있으면서 각자의 역학구도 속에서 상하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하이는 무역항으로 성장해갔다. 상하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를 오가는 기선들의 기항지로, 영화는 상하이에서 먼저 상영된 다음 내지의 다른 도시들로 유통되었다. 조계의 설치로 인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할리우드영화의 절대적인 우세 속에 그것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하지만 상하이는 독자적으로 상하이영화를 탄생시켰고 1940년대까지 중국영화의 중심으로 존재했다.

이처럼 부산과 상하이는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최초의 개항도시였지만 열강들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개항장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것이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고 전파되는 관문이라고 일괄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각자의 역할과 위상에 주목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영화의 유통경로를 통해 문화 전파의 양상을 고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2차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1차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발굴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화의 소비가 제작-배급-상영으로 완성되므로 상영작, 관객, 영화관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영화문화의 형성과 그 성격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연구논문

김주관, 「공간구조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개항도시의 식민지적 성격 - 한국과 중국의 개항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吳美一, 「開港(場)과 移住商人」,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9. 05. 31)

吳松弟·王哲, 「근대 중국의 개항 도시와 동아시아」, 『한국학연구』 제2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이지현, 「1920년대 부산과 경성 극장가의 식민성 연구」, 『日語日文學研究』 제105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8.

이호걸, 「1920~30년대 조선에서의 영화배급」, 『영화연구』 41, 한국영화학회, 2009.

이화진, 「유럽영화의 조선 배급-도와상사(東和商事)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25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한상언, 「1910년대 중반 조선에서 유니버설 영화에 관한 연구」, 『씨네포럼』 23,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6.

황은수, 「개항기 한중일 정기 해운망과 조선상인의 활동」, 『역사와 현실』 75, 한국역사연구회, 2010.

### 학위논문

노정호, 『近代 韓日航路에 관한 研究』,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한상언, 『활동사진시기 조선영화산업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汪旭娟, 『近代上海电影与社会生活关系研究(1927-1937)』, 上海大學碩士學位論文, 上海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단행본

김려실,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1901~1945년의 한국영화사를 되짚다』, 삼인, 2006.

임춘성·곽수경 엮고 씀, 『상하이영화와 상하이인의 정체성』, 산지니출판사, 2010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세계의 해항도시 I- 아시아편』, 선인,

개항도시의 근대문화 유입과 형성 - 부산과 상하이의 영화를 중심으로

2014.

홍영철, 『부산근대영화사: 영화상영자료 1915~1944』, 산지니, 2009.

### 번역서 및 외국논저

松浦章·笹川慶子, 『東洋汽船と映画』, 関西大学出版部, 2016.

李天綱, 『人文上海-市民的空間』, 上海教育出版社, 2004.

楊金福編著, 『上海電影100年圖史1905-2005』, 文匯出版社, 2006.

李微, 「近代上海电影院与城市公共空间(1908-1937)」, 『档案与史学』 2004年第3期, 上海市档案馆, 2004.

蕭知緯·尹鴻/何美, 「好莱坞在中国: 1897-1950年」, 『當代電影』 2005年第6期, 中国电影艺术研究中心; 中国传媒大学, 2005.

周仲謀, 「20世纪30年代中国电影的发行放映-以艺华影业公司为例」, 『东方论坛』 2016年第3期, 青岛大学, 2016.

### 기타

편집부, 「부산, 한국 영화 역사의 시발점」, 『로컬리티의 인문학』 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Abstract>

## Research Status and Projects of the Inflow and Formation of Modern Culture in Open Port Cities - A Focus on the Films of Busan and Shanghai

Kwak Sukyoung

The modern age for the three countries about the seas of Northeast Asia, Korea, China, and Japan, began with the opening of ports and started to accept modern civilization. Open ports acted as critical pathways for the inflow and distribution of new culture. Busan and Shanghai were representative open port cities of Korea and China and the cities successfully carried out their roles as open port cities. These cities also played a leading role in distributing and establishing the culture of film, which is a representative element of modern culture. However, differences in the port opening and political situations of the two countries resulted in differences in aspects such as the inflow,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consumption of films. Since Joseon was under the exclusive governance of Japan while Western powers competed over China, the influence of Japan over Joseon was absolute whereas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France, and Germany exerted influence over China. Also, the influence of Japan became all the more dominant after the port opening of Busan where exchange with Japan was activ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Waegwan in the city since the 15th century as Busan is located so close to Japan with only a sea in between.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ce of the US and Europe were significant in Shanghai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hanghai International Settlement, that brought together the US and UK, and the French Concession while Japanese influence was minor.

Here, I investigated that pathways Joseon and Chinese films were brought in and distributed within the country. Looking at the process of inflow and development for films, cinema was born in France and was then spread to Europe, US, and Asia. Initially, films flowed into Joseon through Shanghai and then foreign film distributors were gradually established in Japan. Branches of such distributors were then

개항도시의 근대문화 유입과 형성 - 부산과 상하이의 영화를 중심으로

established in Joseon and the inflow of films to Joseon turned to Japan. As for China, Shanghai became a central city for films early on and so most of the films were brought in through Shanghai. Although Busan first saw the blooming of theater culture in Jose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very first film production companies as the city that was directly influenced by Japan, films were shown for the first time in Kyungsung. The distribution of films also started at Kyungsung where films were shown first followed by the provincial cities. Moreover, cineastes and filmmakers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films in Kyungsung. When a nationwide Joseon film boom occurred, this phenomenon did not occur in Busan, revealing the coloniality. On the other hand, Shanghai grew as a central city of Chinese film up until at least the 1940s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films as well as the active making of Chinese films. So it was found that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pening of ports are can hardly see in a lump, and need to look at individual specificities in various relationships and situations.

**Keywords:** the seas of Northeast Asia, Busan, Shanghai, the opening of ports, inflow and formation of modern culture, film, routes

논문접수일 : 2019년 04월 05일

심사(수정)일 : 2019년 05월 0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2일

КСІ